

# 에너지로 마음을 가득



제16회 에너지의 날 캠페인 (2019. 8. 22. 노을공원)



# 햄버거를 먹으며 슬로시티를 꿈꾸나?

글 / 김학주 (회원)

점심 메뉴 고르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 오늘은 간단히 햄버거로 때우기로 했다. 혼자서 먹어야 하는 데다,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서 선택한 메뉴다. 그리고 곧장 가까운 매장으로 향했다. 점원이 있는 계산대로 향했고, 세트메뉴를 선택했다. 단품 가격과 비교하니 훨씬 효율적이었다. 감자튀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대도 그냥 세트를 골랐다. 토마토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햄버거에서 빼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아 그냥 주문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잠시 기다리자 주문한 메뉴가 준비됐다. 쟁반에 음식을 담아 빈자리를 찾았다. 빨대와 휴지도 몇 장 집어 쟁반에 올렸다. 방학이라 그런지 학생들도 많았고 빈자리 찾기가 쉽지 않았다. 구석진 곳에서 빈자리를 찾았는데, 탁자가 지저분했다. 그래도 그냥 앉았다. 어차피 빨리 먹고 나갈 거니까. 스마트폰을 보며 감자튀김을 하나씩 집어 먹고 있는데 눈치가 보였다. 빨리 자리를 비켜주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대충 먹고 일어섰다. 먹고 난 쓰레기는 모두 분리해서 버렸다. 난 문화시민이니까. 15분 안에 점심을 해결했다. 점심시간... 충분한 여유를 갖게 됐다. 효율적인 식사였다.

햄버거 매장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다. 요즘엔 주문도 터치스크린을 이용하다보니 점원과 마주할 필요도 없다. 어떤 매장은 차에서 주문하고 잠시 기다렸다 음식을 받아가기도 한다. 차에서 내리지 않아도 된다. 패스트푸드점처럼 효율적인 공간이 또 있을까?

우리는 '효율적'이라는 것을 매우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오늘의 점심식사는 그랬을까? 물론 매장 사장에게는 대단히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노력에 비해 좋은 결과를 챙기는 것이니까.

식당을 찾은 손님이 직접 점원을 찾아와 주문했다. 감자튀김 끼워 팔기에도 성공했다. 우리 메뉴는 손님의 취향을 존중하지 않고 정해진 조리법으로 요리해서 손님께 전달만 하면 된다. 음식이 나오면 손님은 쟁반에 음식을 담아 빈자리를 찾아 먹는다. 그리고 먹고 난 후엔 고맙게도 쓰레기도 말끔히 치워주고 간다. 다음 사람을 위해 자리도 빨리 비워준다. 사실 오래 앉아있지 못하게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로 매장을 꾸몄는데, 손님들은 그것을 알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는 오늘 패스트푸드점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 속에서 그대로 움직였을 뿐이다. 마치 공장 컨베이어 벨트위에 놓인 기계의 '부속품' 처럼. 나는 매장에서 최고의 손님 대접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종업원에 가까웠다. 그런데도 비싼 음식 값을 고스란히 지불해야 했다. 나에게서는 절대 '합리적'이거나 '올바른' 선택이 되지 못했다. 어리석은 선택이었지만 '패스트푸드'가 추구하는 효율성이 어떻게 인간을 도구로 전락시키는 '가'를 분명하게 증명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단지 패스트푸드뿐만이 아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마트에는 1년 내내 칠레산 청포도가 전시되기 시작했다.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칠레산 청포도가 국산 청포도를 밀어냈다. 저렴하고 구하기

도 쉽다. 당연히 효율적인 생산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자원이 낭비되고 자연이 파괴되었을까? 슬로푸드는 이러한 반성도 담고 있다. 이윤을 극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자연을 파괴하며 인간을 도구로 전락시키는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을 막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슬로푸드며 로컬푸드다. 지속가능하며 조화로운 삶을 위한 우리의 선택이다.

또 어느 순간부터 슬로시티라는 개념도 마주하기 시작했다. 슬로시티는 삶의 공간을 파괴하는 속도의 굴레에서 벗어나 느낌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열차가 등장하며 인류의 역사는 바뀌었다. 열차는 인간의 이동 속도를 매우 빠르게 했다. 하지만 출발지와 목적지가 가까워지면서 그 사이의 공간은 모두 창밖의 풍경이 되어 버리거나 아예 삭제되어 버렸다. 걸어서 갈 때는 햇볕을 피할 나무그늘과 발을 담글 시냇물이 그리 반갑고 좋았다. 그 공간속에 내가 있었고 그 속에서 호흡했다. 하지만 열차를 타면서 그곳들은 추억이 되었고 점차 잊혀져갔다. 사람들은 도시로 몰리기 시작했고, 무차별한 개발로 자연은 파괴되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바로 슬로시티다. 이제는 조금 멈추거나 걸어보자는 얘기다.

목포의 슬로시티 선정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보리마당로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용머리의 풍경, 바닷가의 희로애락이 숨어있는 다순구미의 삶, 아픈 역사를 간직한 목포의 근대 유산들. 목포를 걷다보면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고, 인간의 삶을 만나고, 역사를 만나게 된다. 이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슬로시티 선정을 관광지 '개발'의 명분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내심 염려스럽다. 솔직히 길거리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현수막도 불쌍사납다. 한편에서는 슬로시티 지정을 축하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케이블카 개통을 앞당기려 한다.

케이블카는 고하도와 유달산을 연결하며 그 사이 공간을 모두 없애버렸다. 걸으면서 만나야 할 바닷가의 삶도 사라지게 했다. 목포의 아름다운 경관도 절단내버렸다. 만약 케이블카가 실패하면 흥물로 남을 것이며, 케이블카가 '성공'한다면 고하도와 유달산에 관광버스가 준비할 것이다. 버스를 위해 도로를 늘려야 할 것이며, 그때는 엄청난 자본이 들어와 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 쫓을 지도 모른다. 슬로시티에 패스트푸드점이 우후죽순처럼 생길수도 있다.

목포가 진정 아름다운 슬로시티로 '발전'할 수 있을까? 여유와 느낌이 있고, 문화와 삶이 있는 목포. 무차별한 개발을 막고 조화로운 삶을 모색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대하는 목포를 꿈꾼다. 햄버거를 먹으며 슬로시티를 계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슬로시티 목포를 위한 제언



글 / 유영업 (회원)

목포시가 오는 10월 슬로시티 목포비전을 발표한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그 지역만의 것, '목포만의 지향'을 보여주는 새로운 슬로시티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까?

사실 슬로시티의 방향은 국제슬로시티의 인증 조건에 잘 담겨 있다. 조건에는 에너지 및 환경정책, 인프라 정책, 도시 삶의 질 정책, 농업 관광 및 전통 예술 보호정책, 방문객 환대 지역주민 마인드와 교육, 사회적 연대, 파트너십 등의 7개 분야와 세부 72개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슬로시티 지정 면적이 목포시 전체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조건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면 1개 부서가 아니라 목포시청 전체 부서가 추진해야 할 일이 되겠다. 목포시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는 앞으로 살펴보면 되겠고 나아가갈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주민 스스로 말해야 한다. 슬로시티의 철학은 '느리지만 분명하게(slow but surely)' 를 말한다. 느리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자는 의미일 것이다. 모든 일이 그렇듯 주민들의 다양하고 창조적인 생각들이 시작단계에서부터 모여야 한다. 슬로시티 목포가 과연 필요한지, 어떻게 나아가갈 것인지 시민들과 끊임없이 만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목포만의 것'이 나올 수 있으며, 추진 동력을 만들 수 있다. 목포시가 첫 단계에서 시간을 두고 해야 할 일이다.

둘째, 모니터링은 필수다. 시작 전에 목포시의 생태환경과 생활 역사 문화 등을 꼼꼼히 들여다 보아야 한다. 생태환경은 영산강 하구와 내항, 유달산 삼학도 외달도 달리도, 폐선부지와 삼향천 상리천 임압천 등 내륙의 환경을 권역별 잘 구분하고 그에 맞는 크고 작은 '재생의 공간'을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시민이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인위적 경관이 늘어나는 요즘,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여유 있는 재생의 공간이 확대되어 갈 것이다.

생활역사문화자원 모니터링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과거의 역사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잘 알아야 효과적인 정책



을 수립할 수 있다. 매일같이 시민들을 만나고 또 만나야 한다. 모니터링은 방향과 목표, 항목을 정한다음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객과적인 자료로 전과 후를 살펴보는 자료로,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목표의 '가치'에 더욱 깊이와 영속(Sustainable)을 줄 것이다.

셋째, 사람이 남아야 한다. 슬로시티 전남의 5개 지역의 사업을 경험했었고, DMZ 일원, 백두대간의 32개 자치단체, 대부도와 장봉도, 설악산과 오색마을, 주남저수지와 주변 11개마을, 순천만과 어촌마을 등에 다니면서 줄곧 하는 말이다. 주민들은 결국 거창한 계획보다 '행복'을 말한다. 그래서 담과 마당, 마을길 등 삶의 공간, 맛 좋은 농수특산물을 가지고 만드는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숙박·먹을거리·체험·마을기업·주민여행사 등의 다양한 일을 진행할 때 스스로의 자립의 중요성을 말한다. 보조 사업은 결국 자립을 위한 수단이지 모든 것을 의존하다보면 사업비가 끝나면 진행되는 일도 끝난다. 어디서나 어느 때를 막론하고 문제는 있기 마련이다. 함께 극복하고 토론해 나가야 하고, 결국 사람이 남아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예컨대 <슬로시티 목포 센터>는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함께 성장할 것이다. 어느 한명의 전문가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민, 전 현직 행정 공무원과 지역 전문가, 지역 활동가 등이 하나의 '공간'에서 어울리는 활력있는 선순환 모델이 만들어 질 것이다.

위와 같은 바탕이 있으면 '잘 놀자'라는 개념으로 공동농장을 하나 임대해서 레지던스(1층 NGO, 2층 노인 모임 장소, 옆에 커뮤니티 키친, 매장)을 만드는 것, 동네의 아줌마들이 아무렇게나 와서 놀 수 있는 공간, 작은 건물에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일 등 다양한 재미난 일이 일어난다.





# 관광차로 붐비는 ‘느림의 도시 목포’

글 / 김영준 (회원)

‘슬로시티 = 관광지 개발’ 인식 한계  
“교통대란 걱정하는 슬로시티가 어디 있나”  
외달도 달리도 만든 진짜 슬로아일랜드로

‘슬로시티 목포’를 표방하는 목포시 행정이 아귀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슬로우 시티란 공해 없는 자연 속에서 그 지역에서 나온 음식과 문화를 공유하자는 느림의 삶을 영위하는 도시를 말한다. ‘불편함이 아닌 자연에 대한 인간의 기다림’을 주제로 하며, 급하고 빠르게 사는 것보다 천천히 살며 한가롭게 거닐기, 듣기, 권태롭기, 꿈꾸기, 기다리기, 마음의 고향을 찾기, 글쓰기 등 무한 속도 경쟁의 디지털 시대보다 여유로운 아날로그적 삶을 추구하는 것을 슬로건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6일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을 앞두고 밀려드는 관광객과 차량으로 인한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목포시는 교통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다. 시는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과 교통종합상황실 설치를 마무리하고 시험 가동에 나서는가 하면 주차 공간 추가확보 등에 골몰하고 있다.

목포시의 수요전망에 따르면 목포해상케이블카의 연간 이용 예상인원은 136만 명으로, 하루 최대 예상 관광객은 유달산 8192명, 고하도 5461명 등 1만3653명에 이른다. 1일 최대교통량은 3600대(승용차 3323대, 버스·기타 277대), 주말 피크시간대(토요일 오후 2~3시 사이)에는 유달 승강장(531대)과 고하 승강장(405대)에 936대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호 목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따라 서해안에서 진입하는 ‘고하대로’ 구간이 교차로가 많아 극심한 차량지체가 예상된다”면서 “ITS체계를 통해 신호조정, 교통분산 등을 유도하고, 주말 등 북항지역 불법주정차 즉시단속 등을 통해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로와 주차장이 한정된 상황에서 밀려드는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 시킨다면 정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다.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교통 대란’과 ‘느림의 도시 목포’ 슬로시티, 목포시 행정의 양면이다. 모순이다.

지난 6월 22일 국제슬로시티 지정 직후, 목포시는 “세계적 브랜드인 슬로시티 로고마크를 각종 마케팅과 홍보 활동에 사용할 수 있어 도시 브랜드가치 향상과 관광객 증가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슬로시티 = 관광지 개발’, 김종식 시장이 이끄는 목포시 행정의 인식이다.

민선 7기 출범 초부터 김종식 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목포를 팔아먹겠다’고 강조해 왔다. 김 시장은 목포를 팔아먹기 위한 전략으로 ‘4색(色)의 도시’를 내세웠다. ‘항구 도시, 맛의 도시, 슬로시티, 문화 도시’이다.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 김 시장의 밑그림이다.

‘목포를 어떻게 포장해야 잘 팔아먹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의 끝에 슬로시티가 맞닿아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 오르비에토에서 시작된 슬로시티 운동의 본연의 정신은 어디가고 껍데기인 천박한 상업성만 남았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지난 6월 국제 슬로시티 총회에서 국내 16번째로 국제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목포시는 오는 10월 1일 목포시민의 날 행사에서 국제슬로시티 비전 선포식을 갖고 내년부터 관련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당초 시는 9월까지 슬로시티 목포의 미래 비전과 정책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단계별 추진전략과 관광 브랜드화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10월 ‘슬로시티 목포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늦어지고 있다. 슬로시티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니 ‘슬로시티 목포’라는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이 제대로 나올 리 없다. 시는 오는 9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목포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현재, 목포시가 구상 중인 ‘슬로시티 목포’의 세부 추진계획은 권역별 사업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콘텐츠로 외달도와 달리도를 묶는 ‘슬로아일랜드’권, 원도심과 유달산권, 만호동 근대역사거리권, 갯바위권 등이다. 이중 원도심과 유달산권, 만호동 근대역사거리권, 갯바위권 등은 이미 관광 상품화가 진행됐다.

슬로시티 지정된 후 목포MBC 대담에서 김 시장은 “외달도 달리도는 자연 환경을 잘 살려 가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슬로우시티로서 새로운 목포의 특성을 살리는 멋진 슬로우시티, 쉬어 가는 아늑한, 조용한, 그러면서 좋은 슬로우시티를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전통문화와 슬로푸드가 보전된 외달도와 달리도는 어촌 뉴딜 300사업과 조화를 이뤄 국내 최대 바다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다.

관광차로 분비는 ‘느림의 도시 목포’에서 외달도와 달리도 만이라도 제대로 된 ‘슬로시티 목포’가 되길 바란다.





- 02일(화) 1회용품 안쓰는 장례문화 만들기 발대식&기자회견(전남도청)
- 03일(수) 세월호 책자발간 편집회의(환경운동연합 2층)
- 05일(수) 정명여교 환경교육 /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바자회
- 09일(화) 찾아가는 ESD교육(보성여중)
- 10일(수) 목포시민사회 소통과 연대 회의
- 11일(목) 찾아가는 ESD교육 (북평초등학교)
- 12일(금) 해안쓰레기모니터링 워크숍(부산해양대\_1박2일)
- 13일(토) 시민회원과 함께하는 생태탐사 / 찾아가는 ESD교육 (향도여자중학교)
- 14일(일) 강하천살리기 살리기 현장 조사 (2차)
- 15일(월) 민선7기 네트워크 회의
- 16일(화) 목포시의회 주최 공원일몰제 토론회(오거리문화센터)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목포지회 집행위원회
- 17일(수) 회원확대 특별위원회 / 소식지 편집위원회
- 21일(일) 강하천살리기 현장 조사(3차)
- 22일(월) 일회용 추방특별위원회 회의 / 김훈 시의원 규탄대회(민주당 전남도당)
- 25일(목) 도토리 어린이집 환경교육 / KBS 지역방송국 기능축소 관련 회의
- 26일(금) 하당초등학교 석면보양 점검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기자회견
- 27일(토) 청소년서포터즈 착한에너지 캠페인(만인계축제)
- 28일(일) 강하천 살리기 현장 조사(4차)

· 1회용품 안쓰는 장례문화 만들기 발대식&기자회견(전남도청)



· 시민회원과 함께하는 생태탐사(다섯번째)



· 목포시의회 주최 공원일몰제 토론회(오거리문화센터)



· 착한에너지 캠페인(만인계축제)







월

- 02일(금) 김훈 의원 규탄대회
- 03일(토) 강하천 살리기 현장조사(광주 서창)
- 05일(월) 815통일열차 실무회의 / 석면모니터링(하당초) / 장례식장 일회용 추방위원회 회의
- 06일(화) 소식지 편집위원회 회의 / 목원동 도시재생사업 변경신청서 제출
- 07일(수) 빈용기 실태 조사
- 08일(금) 하당초등학교 석면 보양상태 점검 / 녹색연구회 창립 기념 '주전장' 영화감상
- 12일(월) 석면모니터링 보양상태(문태고 / 김훈 의원 제명관련 시의회 회의 방청
- 13일(화) KBS목포지역국 폐쇄 관련 설명회 참석
- 14일(수) 해안쓰레기 모니터링(하조도, 목동리 해변)
- 15일(화) 815 통일열차(도라산역, 광화문)
- 16일(수) 석면 현장모니터링 (문태고)
- 19일(월) 공원일몰제 관련 회의 / 일회용품 추방 특별위원회 회의
- 22일(목) 찾아가는 ESD 교육 (함평손불중) / 16회 에너지의 날 부스운영과 캠페인(노을 공원)  
전남시국회의 결성식 및 기자회견
- 23일(금) 생태하천 복원사업 심의(장흥군 유치전)
- 26일(월) 회원확대 특별위원회
- 28일(수) 찾아가는 ESD 교육 (정명여중 / 교육청 참여위원회)(보성)
- 30일(금) 강하천 살리기 현장 조사

· 녹색연구회 창립 기념 시민회원 영화감상 [주전장]

· 해안쓰레기 모니터링(하조도, 목동리 해변)



· 815 전남평화통일열차



· 전남시국회의 결성식 및 기자회견

7월

(유)서남환경/(유)인동기업/(유)일우산업/(주)달빛언덕/(주)보해양조/(주)수다방게스트하우스/(주)현성건설/더오래플/목포대성신탁/우진건설/특허사무소 다임/해바라기지과의원/감의갑(장미선)/강구일/강덕수/강동호/강명근/강석원/강성희/강영규/강제석/강종량/강창원/강철수/강해정/고경석/고광업/고광현/고광현/고성철/고윤혁/곽기태/곽기태/곽신영/곽재구/국순천/권가별/권수현/김가영/김경미/김경완/김공경/김광미/김광호/김귀영/김근순/김기봉/김나영/김대중/김도관/김도형/김동욱/김명숙/김명중/김명진/김명화/김명희/김무영/김미영/김미정/김미희/김민국/김민근/김병욱/김보현/김상순/김상훈/김상훈변호사/김선남/김성길/김성룡/김성희/김수린/김숙자/김순영/김승현/김승현/김시연/김애숙/김애자/김영남/김영식/김영운/김영재/김영준/김영현/김영호/김옥/김옥미/김완석/김용구/김용임/김용진/김용기/김원이/김유현/김윤임/김은미/김인순/김일용/김재영/김재혁/김정민/김종국/김주재/김지숙/김진숙/김진형/김진희/김창식/김창훈/김철주/김탁/김태근/김태수/김태웅/김판삼/김해성/김행연/김현근/김현숙1/김현숙2/김현정/김현주/김형기/김형애/김홍안/김화영/김환석/김희주/나광봉/나양명/나천귀/남명숙/남주연/노애란/노천우/류미현/류은경/마홍식/모원종/무관/문경진/문원규/문철주/문호/민경관/박갑수/박경봉/박경봉/박경서/박경양/박광단/박기남/박기성/박기철/박기훈/박대성/박동구/박동환/박미옥(박주익)/박미정/박병구/박서근/박성영/박성욱/박성원/박성현/박수현/박순미/박영윤/박용일/박용호/박원석/박유정/박유진/박윤길/박은숙/박은숙/박은희/박재신/박정록/박종선/박종섭/박종수/박종우/박지현/박찬우/박창수/박창우/박창우/박철수/박철균/박필수/박한진/박현/박현/박현경/박현숙/박혜숙/박화진/박희성/배동희/배서영/백동진/백재복/변재영/봉형구/서병권/서연순/서정/서정만/서한배/설지연/성보석/성상훈/손문선/손문선/손버리/손봉현/손철주/손현/송두호/송영미/송원천/송정미/신경희/신동영/신원식/신현령/신현민/심우엽/안해영/양덕수/양승희/양정호/양주동/양창숙/양현주/양환/양효식/염미순/염승주/오경섭/오미선/오소향/오승원/오영출/오왕근/오재욱/오하늘/오현주/옥선필/옥선필/위준철/유대훈/유영순/유영연/유영창/유원석/유은숙/유지원/유효준/윤기현/윤남/윤동준/윤선미/윤선진/윤성광/윤성수/윤원희/윤종민/이경매/이경석/이경숙/이경아/이경태/이광봉/이기식/이내홍/이동훈/이명숙/이명희/이미순/이봉섭/이상엽/이성환/이승환/이수/이승용/이승환/이승환/이승희/이명주/이명주/이용기/이용자/이용철/이우주/이원기/이일호/이재경/이재우/이재이/이재현/이정남/이정석/이정원/이종환/이종훈/이준화/이지우/이지현/이창일/이창현/이학수/이현승/이현인/이현정/이현진/이형광/이형완/임경숙/임성진/임은아/임지현/임진옥/임창욱/임혁/장관호/장근천/장동춘(박민아)/장영미/장이주/장이진/장이영/장재연/장진실/전경남/전경란/전성보/전성열/전양수/전용원/전준수/전현숙/정거배/정교운/정권율/정기심/정대일/정동욱/정성우/정수민/정순용/정승민/정연수/정연우/정연희/정영호/정윤정/정인숙/정일/정종삼/정지범/정창권/정현찬/정효준/제갈경희/조경민/조미정/조상현/조선희/조애련/조애순/조영민/조육현/조완오/조원기/조은일/조재문/조혜향/조호빈/진선우/진지연/차용만/차용훈/채희준/천정우/최경민/최규진/최규광/최근욱/최명수/최명식/최미호/최석원/최선국/최성국/최승주/최승훈/최승희/최영섭/최예화/최완수/최은규/최은기/최은녕/최은주/최미문/최정삼/최정훈/최지우/최진상/최철수/최태욱/최현영/최화광/최환석/하영성/한봉철/한양규/한은섭/한인숙/허진홍/현인숙/홍갑석/홍광복/홍성기/홍성혁/홍세영/홍택용/황민수/황순진/황형수/황혜미/

목포환경운동연합 7월 결산보고

| 수 입  |       | 금 액       |
|------|-------|-----------|
| 항 목  |       |           |
| 회 비  | 개인회비  | 6,376,000 |
|      | 단체회비  | 475,000   |
|      | 6월 3차 | 930,000   |
| 소 계  |       | 7,781,000 |
| 사업수입 |       | 435,000   |
| 후원금  |       | 150,000   |
| 기타수익 |       | 290,000   |
| 이자수익 |       | 0         |

[후원금]

- 후원회원 150,000원

[사업수익]

- 생태탐사참가비 135,000원
- 들꽃광고비 50,000원
- 포마린광고비 250,000원

[기타수익]

- 일자리안정자금 290,000원

|       |           |
|-------|-----------|
| 당월수입금 | 8,656,000 |
| 전월이월금 | 528,384   |
| 합 계   | 9,184,384 |

| 지 출   |         | 금 액       |
|-------|---------|-----------|
| 항 목   |         |           |
| 사 업 비 | 교육사업    | 54,000    |
|       | 조사연구    | 0         |
|       | 홍 보 비   | 0         |
|       | 행 사 비   | 133,000   |
|       | 연대사업    | 849,960   |
|       | 역량강화    | 1,154,700 |
| 소 계   |         | 2,191,660 |
| 회 의 비 | 총 회 비   | 0         |
|       | 위원회비    | 89,000    |
| 소 계   |         | 89,000    |
| 인 건 비 | 급 여     | 3,617,730 |
|       | 복리후생비   | 762,710   |
|       | 퇴직적립금   | 320,750   |
| 소 계   |         | 4,701,190 |
| 업무추진비 | 출 장 비   | 0         |
|       | 활 동 비   | 120,000   |
| 소 계   |         | 120,000   |
| 사무관리비 | 비품구입비   | 0         |
|       | 수 선 비   | 75,000    |
|       | 도서인쇄비   | 18,000    |
|       | 통신광열비   | 412,780   |
|       | 소모품비    | 180,000   |
| 소 계   |         | 685,780   |
| 기 타   | 환 경 기 금 | 100,000   |
|       | 제세공과금   | 30,620    |
|       | 보 험 료   | 100,000   |
|       | 지급 수수료  | 131,240   |
| 소 계   |         | 685,780   |
| 당월지출금 |         | 8,149,490 |
| 동장 잔액 |         | 1,034,894 |
| 합 계   |         | 9,184,384 |

# 8월

(유)서남환경/(유)인동기업/(유)일우산업/(주)달빛언덕/(주)보해양조/(주)수다방게스트하우스/(주)현성건설/더오래들/목포대성신협/우진건설/특허사무소 다임/해바라기과외원/감익갑(정미선)/강구일/강덕수/강동호/강명근/강석원/강영규/강제석/강제원/강창원/강철수/강해정/고경석/고광업/고광진/고광진2/고광현/고성철/고은혁/곽기태/곽성영/곽재규/국순천/권가별/권수한/기재명/김기영/김경미/김경민/김경원/김공경/김광미/김광호/김귀영/김근순/김기봉/김나영/김대중/김도관/김도형/김동욱/김명숙/김명중/김명진/김명화/김명희/김무영/김미영/김미정/김미화/김민국/김민근/김민주/김민지/김민지/김병욱/김보현/김상순/김상훈/김상훈번호사/김선남/김성길/김성룡/김성민/김성희/김수린/김숙자/김순미/김순미/김순영/김승현/김시연/김애숙/김애자/김영남/김영식/김영식/김영재/김영준/김영현/김영호/김옥/김옥미/김완석/김용구/김용임/김용진/김용기/김원이/김유현/김윤임/김은미/김인순/김일영/김재영/김재혁/김정민/김중국/김주재/김지숙/김진숙/김진형/김진희/김창식/김창훈/김철주/김탁/김태근/김태수/김태웅/김판삼/김학주/김해성/김해연/김현근/김현숙1/김현숙2/김현정/김현주/김형기/김형애/김혜숙/김홍안/김화영/김환석/김희주/김희주/나광봉/나양명/나천귀/남명숙/남주연/노애란/노천우/류미현/류은경/마홍식/모원중/무관/문경진/문원규/문정임/문철주/문호/민경관/박갑수/박경봉/박경서/박경양/박금단/박기남/박기성/박기훈/박대성/박동구/박동환/박미덕/박미덕/박미숙/박미옥(박주익)/박미정/박병구/박서근/박성연/박성욱/박성희/박성현/박수현/박순미/박영윤/박용일/박용호/박원석/박유정/박유진/박윤길/박은희/박재신/박정록/박종선/박종섭/박종수/박중순/박중위/박중현/박찬우/박찬임/박창수/박창우/박창현/박천용/박철수/박희균/박필수/박한진/박현/박현경/박현석/박현숙/박화진/박희성/배동희/배서영/백동진/백동규/백재봉/변재영/봉형구/서연순/서정/서정민/서한배/설지연/성보석/성상훈/소혜인/소혜인/손문선/손버리/손봉현/손철주/손현/송두호/송영미/송원찬/송정미/신경희/신동영/신원식/신현경/신현인/심우엽/안정배/안혜영/양덕수/양승희/양정호/양주동/양창숙/양현주/양환/양환/양희석/염미순/염승주/오경선/오미선/오숙함/오승원/오영출/오왕근/오재록/오하늘/오현주/육선필/위준철/유대홍/유영순/유영창/유원석/유은숙/유지원/유호진/윤기현/윤남/윤동준/윤선미/윤선영/윤성광/윤성수/윤원희/윤인수/윤종인/이경매/이경석/이경숙/이경아/이경택/이광봉/이기식/이동훈/이명숙/이명희/이미수/이봉섭/이상업/이상환/이송환/이수/이승용/이승우/이승우/이승환/이승희/이용기/이용자/이용철/이우주/이원기/이일호/이재경/이재우/이재이/이재현/이정남/이정식/이준환/이준호/이준화/이지우/이지현/이창일/이창현/이학승/이현숙/이현정/이현진/이형광/이형완/임경숙/임성진/임은아/임지현/임진옥/임혁/장관호/장근천/장동춘(박민아)/정영미/정이주/정이진/정이현/정재연/정지은/정지은/정진실/전경민/전경란/전상보/전성열/전성철/전양수/전원정/전준수/전홍철/정거배/정고운/정권윤/정기진/정대일/정동욱/정성우/정수민/정순용/정순용/정순원/정연수/정연우/정연희/정영주/정영호/정유나/정윤정/정인숙/정일/정중삼/정지범/정찬권/정현찬/정호준/제길경/조경민/조미정/조상현/조선희/조애련/조애순/조영민/조옥현/조완우/조원기/조은일/조혜화/조호민/진선우/진지연/차용만/차용훈/채희준/천정우/최경만/최규진/최규광/최근욱/최명숙/최명식/최병삼/최비호/최석원/최성국/최성국/최승주/최승춘/최승희/최영섭/최예화/최완수/최용선/최은규/최은기/최은년/최은주/최이문/최정삼/최정훈/최지영/최지우/최진상/최철수/최태욱/최현영/최화영/최환석/하영성/한봉철/한양규/한은섭/한인숙/허진홍/현인숙/홍갑석/홍광복/홍성기/홍성혁/홍세영/홍정우/홍택용/황민수/황순진/황형수/황혜미

## 목포환경운동연합 8월 결산보고

| 수 입  |      | 금 액       |
|------|------|-----------|
| 항 목  |      |           |
| 회 비  | 개인회비 | 6,445,000 |
|      | 단체회비 | 475,000   |
| 소 계  |      | 6,920,000 |
| 사업수입 |      | 0         |
| 후원금  |      | 400,000   |
| 기타수익 |      | 374,000   |
| 이자수익 |      | 0         |

### [후원금]

- 후원회비 150,000원
- 디자인그리다 250,000원

### [기타수익]

- 일자리 안정자금 290,000원
- 하당청소년수련관 대관비 반환 60,000원
- 최지현 24,000원

|       |           |
|-------|-----------|
| 당월수입금 | 7,694,000 |
| 전월이월금 | 1,034,894 |
| 합 계   | 8,728,894 |

| 지 출   |       | 금 액       |
|-------|-------|-----------|
| 항 목   |       |           |
| 사업비   | 교육사업  | 54,000    |
|       | 조사연구  | 0         |
|       | 홍보비   | 0         |
|       | 행사비   | 75,000    |
|       | 연대사업  | 394,640   |
|       | 역량강화  | 0         |
| 소 계   |       | 523,640   |
| 회의비   | 총회비   | 0         |
|       | 위원회비  | 53,000    |
| 소 계   |       | 53,000    |
| 인건비   | 급여    | 3,638,730 |
|       | 복리후생비 | 738,750   |
|       | 퇴직적립금 | 322,500   |
| 소 계   |       | 4,699,980 |
| 업무추진비 | 출장비   | 0         |
|       | 활동비   | 120,000   |
| 소 계   |       | 120,000   |
| 사무관리비 | 비품구입비 | 0         |
|       | 수선비   | 0         |
|       | 도서인쇄비 | 518,000   |
|       | 통신광열비 | 156,080   |
|       | 소모품비  | 119,600   |
| 소 계   |       | 793,680   |
| 기타    | 환경기금  | 100,000   |
|       | 제세공과금 | 55,000    |
|       | 보험료   | 100,000   |
|       | 지급수수료 | 101,680   |
| 소 계   |       | 356,680   |
| 당월지출금 |       | 6,546,980 |
| 동장잔액  |       | 2,181,914 |
| 합 계   |       | 8,728,894 |



##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 10

10대부터 알아야 할 환경 이야기

지은이: 박경화 | 한겨레출판 | 2019. 07. 17.

2019 환경의 날'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박경화 작가의 신작.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여우와 토종 씨의 행방불명》, 《지구인의 도시 사용법》 등을 출간하며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가 '나'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삶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온 저자가 이번에는 일상 속 물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저자는 환경 역습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곰곰 돌아봐야 할 것은 바로 그간 무심코 사용해온 일상 속 물건들이라고 말한다. 수십억 지구인들이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지구와 인간의 행복한 공존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물건들 중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은 무엇이고, 이 물건들이 어떤 방법으로 지구를 살리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담았다. 물건과 관련 있는 환경문제, 미처 몰랐던 물건의 성분과 그 유래에 얽힌 이야기, 이 물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인간과 지구가 공생하기 위한 바람직한 물건 사용법 등을 실제 일어난 사건, 다양한 연구 자료를 근거로 소개하고 있다.

### 목 차

#### 여는 글

1. 스테인리스강 \_ 가장 안전한 그릇 | 지구일보 \_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까?
2. 금속 젓가락 \_ 단단하고 깨끗하고 오래 쓰는 식사도구 | 지구일보 \_ 지속 가능한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3. 종이 \_ 가볍고 얇지만 강력한 기록 매체 | 지구일보 \_ 종이를 아낄까, 책을 많이 읽을까?
4. 재사용 가게 \_ 버려진 물건들의 생명 연장 | 지구일보 \_ 어떤 물건을 기부해야 할까?
5. 공원 \_ 복잡한 도시를 살리는 초록 허파 | 지구일보 \_ 공원으로 꾸밀까, 아파트를 지을까?
6. 야생동물 \_ 멸종,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 | 지구일보 \_ 고라니를 보호해야 할까, 포획해야 할까?
7. 자전거 \_ 지구와 나를 살리는 친환경 교통수단 | 지구일보 \_ 자동차를 줄일 수 있을까?
8. 적정기술 \_ 보다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만드는 인간 중심의 기술  
| 지구일보 \_ 과학기술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9. 태양전지 \_ 고갈 걱정 없는 안전한 에너지 | 지구일보 \_ 태양광, 과연 친환경 에너지인가?
10. 패시브 하우스 \_ 온실가스를 내뿜지 않는 친환경 집 | 지구일보 \_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 전 세계의 플라스틱 줄이기

플라스틱의 자연분해가 되지 않는 특성이 지구환경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4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연간 생산된 플라스틱의 79%는 매립되거나 환경에 방치되고 있으며, 12%는 소각되고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9%에 불과합니다. 현재는 47개국이 국가차원에서 비닐봉투와 스티로폼 제품의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역단위 규제까지 포함할 경우 64개국이 제한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별로 어떤 정책을 시행중인지 같이 살펴볼까요?



미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비닐봉투와 스티로폼, 빨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조치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최초로 주 전체에 걸쳐 패스트푸드점을 제외한 모든 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내 모든 음식점은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2번까지 경고를 받고 3번째부터는 300달러 이내에서 하루 25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또한 시애틀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식음료점에서 스티로폼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 도시 최초로 2018년 7월 1일부터 빨대, 플라스틱, 식기류 등의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밖에도 플로리다, 뉴저지, 하와이 주를 비롯해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의 도시들도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나 빨대, 스티로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거나 통과시키는 등 규제도입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U는 2014년 11월 각국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3/4 이상의 수준으로 감축시키는 것에 합의하고 비닐봉투 금지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EU는 2018년 1월 순환경제를 위한 유럽의 플라스틱 배출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플라스틱 면봉, 식기류, 풍선막대는 2022년 이후 사용이 금지되며 식품용기, 음료용기, 풍선, 포장지 등의 생산자는 쓰레기 폐기와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생산자가 플라스틱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하거나 개발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만 환경보호부는 2018년 2월 13일에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플라스틱 폐기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점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쇼핑용 비닐봉투, 일회용 식품용기, 테이크아웃 음료컵 등 일회용 합성수지 제품 사용 제한 및 금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는 공공부문, 사립학교, 백화점 및 쇼핑몰 등 사용제한 대상 내부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료에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제공이 금지됩니다.

위의 세 나라 말고도 호주, 방글라데시, 프랑스, 독일, 모로코 등 다양한 나라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까지 일회용품 및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줄이고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기 위해 노력중인데요. 2018년 8월부터는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대형마트 및 165m<sup>2</sup>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노력들이 모여 우리 지구의 건강을 되찾는 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합니다.

〈한국환경공단 블로그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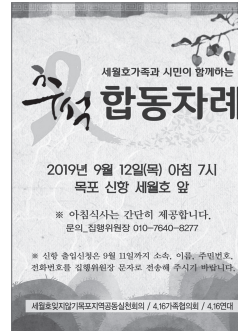


### 목포인권영화제 추진위원회



목포 로데오광장, 메가박스 목포점, 문화공간OZ, 시네마라운지MM에서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인권영화가 상영됐습니다. 목포시와 메가박스의 후원으로 목포인권영화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목포인권영화제는 올해 제8회로 9월 5일(목)-9월 7일(토) 진행됐습니다.

### '세월호 잊지 않기' 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가슴속에 자식들을 묻고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세월호가족은 하루 하루가 힘겨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추석연휴 첫날 아침 일찍 목포 신항 세월호 앞에서 진행된 추석 합동차레에는 세월호잊지않기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등이 침몰된 진실을 인양하자는 다짐을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 목포 시민사회 소통과 연대



목포지역 시민사회진영과 민중진영이 지역의 현안에 함께 대응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상설적 연대기구로 출범합니다. 올해 1월 손해원 의원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역의 투기 논란으로 촉발되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내고 7월 김훈 전 목포시의원의 성희롱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연대기구의 필요성과 시의 적절한 대응을 통해 확실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5단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며 9월 26일 목포평화광장에서 본격적 활동을 위한 출범행사를 진행합니다.

###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



무분별한 e-mart 무인계산대 확대를 반대하는 전남 서남권 시민단체. 제정당 1인시위가 80일간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지역 시민들과 정치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지역민 고용창출과 지역 생산물품 우선 사용등을 약속하며 입점했던 e-mart가 그 약속을 망각하는 행태를 보여 시민들의 공분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 라돈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목포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회원과 시민 여러분 가정의 불안요소인 라돈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간이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 대여 방식

- ① 접수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오전9시~오후6시)
- ② 기간은 1박 2일(24시간)입니다.
- ③ 보증금은 무료이며, 환경관련 광고를 위해 1회 1천원의 대여비용이 있습니다.
- ④ 대여시 파손 방지와 책임에 관한 서명이 있습니다.
- ⑤ 대여와 반납은 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 직접 방문 해주셔야 합니다.

대여 문의

010-8243-3169



## 버리는 순간,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1회용 컵·빨대

비닐봉투

배달용품

세탁비닐

일회용품·플라스틱 줄이기 시민실천운동 함께해요! 목포환경운동연합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Mokpo

# 새롭게 목포환경운동연합의 벗이 되어주신 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최송춘 추천 : 백영규, 최용선, 김정희, 최영숙, 전남실, 조일하    박종선 추천 : 정영주, 문효산, 고광진  
 김태근 추천 : 김유경, 문지연    김경미 추천 : 박미숙    양승희 추천 : 정윤나  
 이경석 추천 : 전대열    이현인 추천 : 이주연    유은숙 추천 : 문정임  
 이현승 추천 : 김영식    자발적 가입 : 구봉선

※ 지인을 소개하여 2명 이상 회원으로 가입하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좋은 사람이  
 좋은 자리에 앉아야  
 좋은 세상이 옵니다**  
 故 서한태 박사님 말씀 중에서

“


 전라남도지정  
 남도음식명가 **해빙**

**최영섭** 회원

생산하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  
 분해하는데 500년!!  
**플라스틱 빨대 NO!!**




**손현** 회원



**포마린**

혼다V6 / 야마하 V6·V8 커맨드 링크 전문점

  
**FOUR MARINE**  
 SINCE 1994

대표 **최은기**

T. 061-272-0118 / 010-9492-4707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220번길 21-11

편집디자인 및 인쇄 : 디자인문화/디자인그라운드 061)287-0146, 010-3888-0145

## | 목포환경운동연합 각 위원회에서 함께 할 회원님을 모집합니다 |

**목포의  
 강·하천을 맑게!!**

하수종말처리장 및 조선시설주변 갯벌 조사  
 목포 강·하천 모니터링



**강하구위원회  
 임성진** 위원장  
 010.5663.1598

**잿빛 도심에  
 녹색 활력을!!**

도심 녹색 프로젝트(가로수, 공원 등)  
 환경친화적 도시정책 연구 활동



**도시환경위원회  
 제갈경희** 위원장  
 010.3326.3890

**바다와 갯벌을  
 생명의 터전으로!!**

국가해안 쓰레기 모니터링  
 목포연안 환경 수시 모니터링



**해양갯벌위원회  
 조원기** 위원장  
 010.9079.2166